한국어의 시점(視點)에 관한 연구*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야(視野)를 중심으로

정 인 아
(서울대학교)

Jeong, In Ah. (2012). On the 'point of view' in Korean: focusing on the 'visual field' of '-아서/어서' and '-(으)니까'. *Language Research* 48.3. 463-485.

Language originates with human cognition, and so it is in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point of view. If the point of view underlies the observation and cognizance of human beings, it should also be reflected in linguistic expressions. However, the point of view has not been explored much in the research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notion hasn't yet risen to the forefront in studying Korean. Thu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oint of view should be used as an important device for the studying Korean. This study has examined how the point of view can be utilized as a useful tool in brevity, and analyzed the point of view reflected in '-아서/어서' and '-(으)니까' specifically. The notion of visual field, which amounts to the range of the point of view, was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out that '-아서/어서' has a narrow visual field, whereas '-(으)니까' has a wide visual field. The narrow visual field, which means ground of the speaker's sight, and the wide visual field, which means ground of the sight both speaker and listener. In short, my analysis explained that impoliteness can take place in '-(으)니까' of a wide visual field a speaker and a listener have in common, whereas imperatives and requests cannot follow '-아서/어서' of a speaker's own narrow visual field.

Keywords: 시점(視點, a point of view, perspective), 시야(視野, visual field), '-아서/어서', '-(으)니까', 좁은 시야(a narrow, small visual field), 넓은 시야(a wide, broad visual field)

1. 서 론

언어는 인간의 지각(知覺)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시점(視點)은 언어와 불가분

* 이 논문은 2011년 5월 14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의 관계에 있다. 인간이 세계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데 시점이 밑바탕이 된다면 언어 표현에서도 시점이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김민수(1981:233)는 모든 실제의 발화는 일정한 시점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하였으며, 최상진(1989:423)도 발화분석에서 시점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연구보다도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서정수(1996:1411)도 문장 문법의 적격성(well-formedness)을 결정하는 데에 담화 문법의 개념인 시점을 고려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으며 대우법과 관련된 발화에서도 시점이 상당한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신호철(2001:113-114)에서도 시점은 통사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장 상의 여러 현상들을 의미・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시점 논의가 국어연구에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문학과 어학의 새로운 공역(共域)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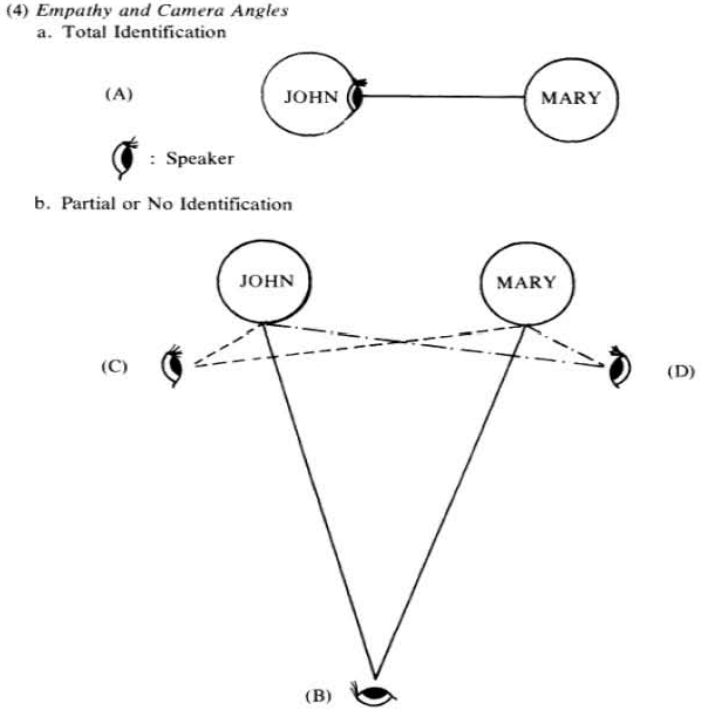
그러나 최상진(1989:423), 신호철(2001:93, 113-114), 홍정하(2011:452-453) 등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점의 적용은 한국어 연구에서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아직 이 개념이 한국어 연구에서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점(視點, point of view)'을 한국어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연구에서 시점이 어떻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간략히 살피고, 그 한 예로서 '-아서/어서'와 '-(으)니까'에서 시점의 범위인 '시야(視野, visual field)'가 서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1)]

2. 시점(視點)의 개념

언어학에서 통사론적 분석에 시점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Cantrall (1969)이며 이후 Kuroda(1973) 등으로 이어진다(Kuno, S. & Kaburaki, E. 1977:629). 시점 논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은 Kuno, S. & Kaburaki, E.(1977)로서 화자의 심적 거리인 '공감도(empathy)'가 통사론과 관련 있는 중요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1) 분석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의 학습자에게서 얻은 오류문장과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예문 및 연구자가 만든 예문을 사용하였다.



(4aA) Total identification : 화자는 전지적
(4bB) John hit Mary.
(4bC) John hit his wife.
(4bD) Mary's husband hit her; Mary was hit by John;
Mary was hit by her husband.

그림 1. 화자의 심적 거리(공감도: empathy): Kuno, S. & Kaburaki, E.(1977:627-629).

그 외에 언어 연구에서 시점의 개념을 밝힌 학자들의 용어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점에 관한 학자들의 용어와 정의

연구자	용어	정 의
임지룡 (1992:340)	'시점 (viewpoint)'	'화자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 하는' 것

연구자	용어	정 의
최규수 (1993:116)	'시점(point of perspective 또는 empathy)'	'우리가 외부세계의 어떤 일을 인식할 때 어느 참여자를 중심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말할이의 태도를 가리킨다.'
길본일 (1996:141-142)	'시점'	'어떤 일을 말할이가 어디에서 보는가 하는 공간적・시간적・심리적인 위치'
서정수 (1996:1410)	'시점'	'말하는 이가 정보를 파악하거나 기술하는 관점과 각도 또는 태도'
신호철 (2001:92)	'시점'	'발화상에서 인식주체가 어떤 사태(事態)를 인식할 때, 자신의 입장을 발화 속의 어느 한 참여 대상에 지향하여 사태를 바라보고 진술하는 태도'
임지룡 (2007:179-206)	'시점 (perspective)'	'개념화자(conceptualizer)'가 '장면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데 취하는 견해, 관점, 입장'
이도열 (2010:31)	시점(point of view, viewpoint)	'화자가 누구의 입장(관점)에서 서술하는가의 문제'
홍정하 (2011:454)	'시점(point of view)'	'화자가 누구의 관점으로, 그리고 화자의 어떤 태도와 믿음으로 문장을 서술하는가'

시점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Y. Tsuji(2002)에서는 시점(perspective)이라는 용어와 관점(viewpoint)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구별 없이 쓰이는 경우와 구별해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 길본일(1996:142-143)에서도 시점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두 가지의 뜻, 즉 첫째는 '어떤 대상에 시력의 중심이 가 닿는 점. 주시점', 둘째는 '사물을 보는 견지'의 뜻으로 쓰이는데 언어학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의 뜻이 혼동되어 쓰였으나 앞으로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점'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찰자, 화자)이 세계(사태)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기술하는 위치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 개념은 화자의 위치나

2) 이 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시점/관점'은 인간이 외계를 이해하는 해석에 작용하는 인지적 특징 중 하나이다. '시점/관점'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구별 없이 쓰이는 경우는 주체인 화자가 상황 해석에서 취하는 견해・관점이라는 뜻이며, 시점(perspective)과 관점(viewpoint)을 구별하는 경우 시점은 입장을 포함한 넓은 용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관점뿐만 아니라 모습과 바탕의 관계, 직시(deixis) 상의 위치관계, 방향성, 주관화 등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인다(임지룡 외 공역, 2004:125-126).

시점의 이동을 포함한 공간적 개념 및 시간적, 심리적(정서적) 개념, 그리고 정보 공유의 개념 등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3. 한국어의 시점(視點)

3.1. 시점에 관한 선행 연구

신호철(2001:93-94)에 따르면 국어에서 시점에 대한 연구는 Kuno, S. & Kaburaki, E.(1977)의 논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제기되었으며, 재귀대명사, 인용문, 이동 동사, 지시어, 문형, 시간관계 표현, 존대법 등에서 시점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3] 그 외에 Lukoff(1989)에서도 서술의 시점을 통하여 '하더니'와 '하였더니'를 각각 '3rd party point of view'와 '1st party point of view'로 설명하면서, 시제와 서술 시점 사이에 연결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이 유용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 이러한 연구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길본일(1996)에서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오다'와 '가다'의 설명을 위해 '시점'의 개념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오다/가다'가 쓰이는 표현을 공간 표현, 시간 표현, 심리 표현으로 나누어 살피고 시점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신호철(2001)에서는 사태에 대한 인식과정과 진술과정을 기준으로 발화 이전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식시점'과 발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진술시점'을 하위 구분하고, 양자를 포괄하는 상위의 시점을 '시점(Point of View)'이라고 규정한 뒤, 화자의 인식 시점을 결정시켜 주는 특수조사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임지룡(2007)에서는 '시점(perspective)'을 인지언어학의 '해석(construal)'의 작용에 동원되는 하나의 기제로 보고 이러한 '시점의 역전 현상'을 다루었다. 조숙환(2009)에서는 국어의 인식양태어미와 화자의 시점이동(perspective-switch)의 관계를 Fauconnier(1997)의 심성공간의 융합(mental space) 이론으로 조명하였다. 홍정하(2011)에서는 담화 표지 '-는'/'가'의 시점과 관련한 특성을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점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연구가 쌓여서 어떠한 경향을 이루는 데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으며, 여러 층위에서 시점을 적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국어 연구에서 시점의 개념이 전면에 드러나 있는

3) 이익섭(1978), 김민수(1981), 임홍빈(1985, 1987), 김홍수(1989), 최상진(1990), 이필영(1993)의 논의에 대해서는 신호철(2001:93-94)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시점을 적용한 문법 현상 분석

앞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시점을 한국어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그 한 예로서 '-아서/어서'와 '-(으)니까'를 시점의 범위인 '시야(視野, visual field)'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분석에 앞서 시점이 한국어 연구에서 어떻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3.2.1. 시점의 이동

먼저 화자의 위치가 이동함으로써 시점이 이동하게 되는 '가다/오다' 동사의 경우, 그리고 화자에게서 청자에게로 시점이 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한국어에서는 '내가 갈게.'라고 할 것을 영어에서는 'I'll come.'이라고 하듯이 '가다/오다'의 선택이 간단하지만은 않다.[4)]

(1) 나중에 필리핀에 가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오경숙, 2009:123)

오경숙(2009:123)에서는 '가다/오다'의 선택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화자의 위치'라고만 볼 수 없으며 실제 발화 상황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음을 밝혔다.[5)] 사건시에 화자는 필리핀에 있을 것이므로 화자의 시점에서 청자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동사 선택의 이유를 화자의 시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예문처럼 같은 상황에서 '가다/오다'가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a. (전화) 김 교수님, 제 조교가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까?
b. (전화) 김 교수님, 제 조교가 교수님 연구실에 왔습니까?
(임지룡, 2007:180)

---

4) '가다/오다'에 관하여 이기동(1977), 길본일(1996), 임지룡(2007) 등 많은 연구가 있다.

5) 단순히 말하는 사람(화자)에게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에 따라 '오다'와 '가다'를 사용하게 한다면 이러한 예문을 학습자가 만들어내기 쉬우나 이동 사건이 일어나는 시각, 즉 사건시에는 학습자가 필리핀에 있을 것이 전제되므로 '오다'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임지룡(2007:180)에서는 화자를 지향하는 상황에는 '오다'가, 화자를 벗어나는 상황에는 '가다'가 사용되는데, (2a)에 '오다'가 쓰인 것은 '오다/가다'의 기존 용법 설명에서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이더라도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다 허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문장 속 시점의 이동을 언중이 용인하고 (2b)의 경우 화자 공간이 아니라 청자의 공간으로 이동된 시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3.2.2. 시점의 일치와 불일치

다음으로 시점의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임지룡(1992:340)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시점이 일치될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청자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한 문장 안에서는 같은 시점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같은 시점이 유지된다는 것은 화자의 시점이 같은 상황, 즉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a.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6]/*못 찾았다.
b.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찾을 수 없었다.
c.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못 찾겠더라.
d.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안 보이더라.

(3a)는 선행절에서 화자의 시점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나 후행절에서는 찾고 있는 상황이 이미 끝나고 찾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 선행절에서 '아무리 찾아도'라고 표현하는 상황은 아직 화자의 시점이 '상황 중'에 있는 것이나 후행절의 '못 찾는다./못 찾았다.'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 후'의 시점으로 시공간이 바뀌어 있다. 즉, 시점이 한 문장 안에서 유지되지 않고 상황 중에서 바로 상황 후로 건너뛴 것이다. 이에 반해 (3b~d)에서는 화자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시공간에서 같은 시점을 유지하고 있어 정문이 된다.

6) 여기서 '못 찾는다.'를 '못 찾을 것이다', 또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예언하듯이 말하는 경우라면 선·후행절이 같은 시공간, 같은 시점을 유지하므로 정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못 찾고 만다'의 의미로 말하는 경우라면 비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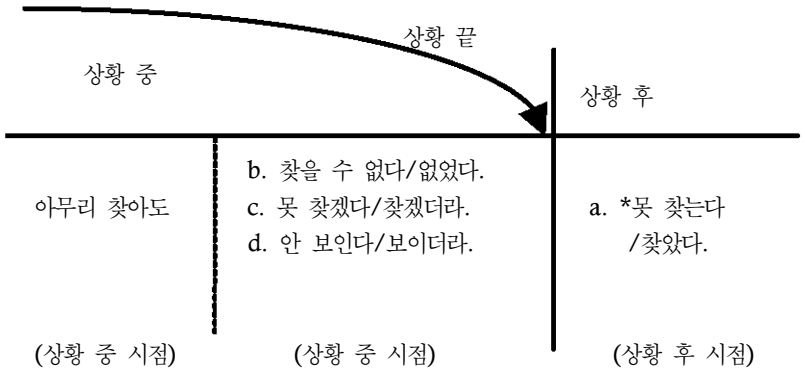


그림 2. 한 문장 내 시점의 일치와 불일치의 예(예문 3).

또한 '못 찾았다.'와 '찾을 수 없었다.'를 놓고 볼 때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면 화자의 시점이 사건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찾을 수 없었던' 과거 상황을 다만 발화시에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못 찾았다.'고 하면 화자의 시점은 발화시에 있고 과거 사실의 결과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예문에서 같은 자리에 바꿔 쓰일 수 없는 이유는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시점이 유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2.3. 시점 불일치의 용인

이렇게 문장 내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가 혼란을 주지 않겠지만 문장 내 시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 문장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언중이 용인한다면 적합한 표현으로 자리를 잡는다.

(4) a. 좀 쉬었다가 합시다.
b. ?좀 쉬다가 합시다.

실제로 한국어 화자는 (4a)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반해, 한국어 학습자는 (4b)와 같은 문장을 만들며 이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으로 기대한다. 발화시 시점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4b)가 더 적합한 문장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는 발화시의 시점, 즉 '쉬기 전'의 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쉬고 난 후'의 미래 상황으로 시점을 이동한 다음, 그 미래 상황에서 볼 때 이미 완료된 '쉬는 행동'에 대하여 '쉬었다가'를 써서 문장을 만든

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의 이동이 별다른 설명 없이 모어 화자 간에는 용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한, 갑자기 한 문장 안에서 시점이 이동한 것이 저절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문법 개념을 통하여서도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함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쉽게 납득할 만한 설명 방법이 될 수 있다.[7]

3.2.4. 시점의 공존

위에서 보았듯이 시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공간을 이동하거나 화자와 청자 사이를 오가기도 하는데, 이처럼 시점이 넘나드는 현상은 한국어에서 새로운 언어 표현을 등장시켰다.

(5) 김영숙 님, 들어오실게요.

최근 병원에서 환자를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장소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와 같은 예는 한 문장 내에서 시점이 혼용, 또는 통합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8] '들어오실게요.'는 청자에게 '(당신은) 들어오세요.'로 시작한 말이, 끝날 때는 화자가 '(제가) 뭔가를 해 드릴게요.'로 끝나고 있는 대표적 시점 불일치의 문장이다. 이런 표현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을 갖고 미래에 새로운 문법 형식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드문 현상으로 이해되긴 하나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면서 두 시점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문법 현상을 분석하는 데 시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시점을 도구로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7) 시점(時點)을 통한 설명도 물론 가능하다. 시점을 통한 설명이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점의 이동은 공간과 함께 시간도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8) 조숙환(2009:114)에서는 '이런 표현에는 화자의 시점이 한 문장 내에서 두 번 변화되는 양상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였다. 즉 화자가 청자의 형편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점진적으로 청자의 관점으로 이입되면서 산출된 표현일 것이라고 보았다.

4.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점 : '좁은 시야(視野)'와 '넓은 '시야(視野)'

4.1. 시야(視野)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점 분석을 위해 '시야(視野, visual field)'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야'라는 용어는 Lakoff, G. & Johnson, M.(1980:30)에서도 다룬 바 있으며 사전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9]

Lakoff, G. & Johnson, M.(1980:30, 노양진・나익주 1995:56)에서는 '존재론적 은유'를 다루면서 '그릇 은유'의 하나로 '시야'를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그 안쪽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시야(visual field)'라는 낱말이 바로 이 점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6) The ship is *coming into* view.
(그 배가 시계에 들어오고 있다.)

I *have* him *in* sight.
(그는 내 시야 안에 있다.)

I can't see him—the tree is *in* the way.
(나는 그를 볼 수 없다—나무가 그를 가리고 있다.)

He's *out of* sight now.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That's *in* the *center of* my *field* of vision.
(그것은 내 시야의 한가운데 있다.)

There's *nothing in* sight.
(시야 속에 아무것도 없다.)

I can't get *all* of the ships *in* sight once.
(그 모든 배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시야를, 그 안에 무엇이 있거나 없는 것,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이것은 시야가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9)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 현미경, 망원경, 사진기 따위의 렌즈로 볼 수 있는 범위, 사물에 대한 식견이나 사려가 미치는 범위'로 풀이되어 있다.

있음을 나타낸다.[10] 이러한 범위는 좁거나 넓을 수 있으며, 인간은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의 시야에 들어온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문법 형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점은 화자에게서 출발하는 출발점(기준점)을 가지며 방향성과 대상을 가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한 개념으로 시점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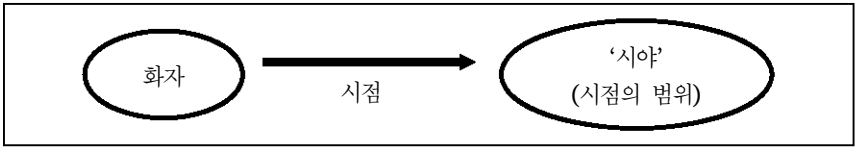


그림 3. 시점과 시야의 관계

4.2.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야(視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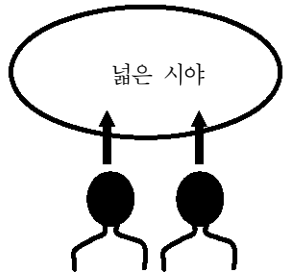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의미와 쓰임을 규정하고 구별하려는 노력은 한국어 문법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11] 그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서/어서'는 [원인]으로, '-(으)니까'는 [이유]로 대개 규정하고, '객관적/주관적', '보편적/개인적', '개연적/필연적', '전제적/결과적', '공손성/비공손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12]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는 그동안 이 두 문법 형식의 연구에서 시점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두 형식은 다음과 같이 '화자의 시점에 대하여 범위(시야)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Lakoff, G. & Johnson, M.(1980:30)에서는 이러한 존재론적 은유는 우리가 사건(event), 행동(actions), 활동(activities), 상태(states)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노양진 · 나익주, 1995:56).

11) 이 연구에서는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시점'과 '시야'의 개념에 집중하여 두 문법 형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남기심 · 루코프(1983), 장경희(1993), 서정수(1990/1992), 조오현(1990), 홍종화(1998), 성기철(2007) 외에 많은 연구가 있다.

표 2. '-아서/어서'와 '-(으)니까'가 지정하는 시야.

'-아서/어서'	'-(으)니까'
좁은 시야	넓은 시야
	
화자의 몸 안에서 내다보는 시야 (화자의 눈앞에 벌어지는 장면에 집중된 시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시야
청자를 끌어들이지 않음	청자와 시점 및 정보 공유

'-아서/어서'의 화자의 시점은 '자신의 몸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좁은 시야'로 한정된다. 화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화자 자신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잘 어울린다. 또 청자는 배제되고 화자 혼자만의 경험을 기술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화자 자신이 말하는 정보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으)니까'에서 화자와 청자는 시점 및 정보를 공유한다. 화자는 화자 자신의 몸을 벗어나 때로 자신의 행동까지 포함한 장면을 '청자와 같은 무대를 보듯이 넓은 시야'에서 바라본다. 그러므로 청자를 의식하여 이끌어 들이며 청자에게 명령, 제안을 하거나 청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화자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고 청자를 끌어 들인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장면을 멀리서 본다는 점이 바로 객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청자와 관여하면서 자신의 시점을 청자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데서 오히려 주관성이 얻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좁은 시야와 넓은 시야의 개념은 이 두 문법 형식의 사용에 대해 알려진 몇 가지 제약과 관련되어 있다.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을 청자에게 직접 표현할 때 '-아서/어서'만이 올 수 있는 점,[13] 그리고 '-(으)니까'

13)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의 표현이 '-아서/어서' 뒤에만 올 수 있다는 것은 화자가 청자

에서 '비공손성'이 발견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먼저 이 제약들을 중심으로 두 문법 형식의 시야에 대한 지정을 살펴보겠다.

4.2.1. 후행절 문장 유형의 제약

먼저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으)니까'의 뒤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지만 '-아서/어서'의 뒤에는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a.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b. 미끄러워서 *조심해!

(7a)는 명령문으로서 화자는 '-(으)니까' 뒤에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으)니까'는 화자와 청자가 정보와 시점을 공유하는 넓은 시야를 지정하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7b)는 '-아서/어서'가 화자의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시야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절에 갑자기 청자를 이끌어 들여서 명령을 하는 넓은 시야로 확대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비문이 된다. 이에 반해 다음 (7c)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7) c. 미끄러워서 조심하면서 걸었어.

(7c)에서 '조심하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다. 화자는 좁은 시야를 지정하는 '-아서/어서' 뒤에 청자에게까지 시야를 확대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향한 좁은 시야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시야가 확대되는 (7b)와 달리 비문이 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좁은 시야란 화자의 몸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과 같은 정도의 범위이다. 물론 화자는 청자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청자가 문장 자체에서 배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자와의 관계는 문장이 '-아/어'로 끝남으로써 맺어진다.

에게 느낀 감정을 현장에서 직접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이러한 표현이 '-(으)니까' 뒤에도 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시하신 문장은 감정을 느낀 현장에서 청자에게 직접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청자나 다른 제2의 청자에게 전에 느꼈던 감정을 전달할 때의 표현이다. 청자 1에게 직접 표현할 때는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주니까 고맙고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줘서 고맙고 미안해.'라고 할 것이다. 청자에게 직접 표현할 때도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주니까 고맙고 미안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의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지'도 '-(으)니까'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의식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아서/어서'로 묘사되는 사태가 화자의 좁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다는 뜻이다. 다음 예문과 같이 청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 a.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b.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갑시다.
c. 배가 고파서 (난) 밥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8a)에서는 화자가 선행절에 청자와 공유하는 넓은 시야의 '-(으)니까'를 사용하여 후행절이 청자를 이끌어 들이는 청유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8b)는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므로 청자에게 갑자기 '밥 먹으러 갑시다.'라고 청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8c)처럼 문장을 둘로 나누어 먼저 '-아서/어서' 뒤에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시야를 좁히는 상황이 오면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청자에게까지 시야가 닿으려면 뒤의 문장처럼 '-(으)니까'를 쓰고 청자를 이끌어 들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청유할 때, 즉 다음 예와 같이 청자를 끌어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9) a. 지금 심심하니까 언제든지 와도 돼요.
b. 지금 심심해서 *언제든지 와도 돼요.[14]
c. 지금 심심해서 (난) 누가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든지 와도 돼요.

(9a)도 '-(으)니까' 뒤에 화자가 청자에게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9b)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점이 심심하다는 스스로의 상황으로 향하여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청자에게 허락을 하는 데까지 넓은 시야로 바뀌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 경우에도 (9c)처럼 화자의 시야가

14)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지금은 한가해서 와도 돼요.'라는 문장이 가능한 상황도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제시하신 문장을 살펴보면 '지금은 (내가) 한가해서 (당신이) 와도 돼요.'로서 선·후행절의 주어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사실상 '지금은 (당신이) 와도 돼요.'로서, 문장 중간에 '(내가) 한가해서'가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어의 경우 이렇게 시점이 혼용된 삽입은 빈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심심해서' 다음에는 '누가 왔으면 좋겠다.'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후에 '그러니까 (당신이) 와도 된다.'가 오는 것이 문장의 연결로 맞을 것이다('심심하다'에 비해 '한가하다'가 발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심심하다'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한가하다'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전체 장면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금 한가해서' 뒤에는 역시 '누가 왔으면 좋겠다.'가 더 자연스러우며, 예컨대 '지금은 한가해서 빨리 오세요.'와 같은 문장이 더 어색한 것을 보아도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좁은 앞 문장과 시야가 넓은 뒤 문장으로 나누면 가능해진다.

4.2.2. 직접적 감정 표현(감사/사과)의 경우

다음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 앞에 '-아서/어서'만이 올 수 있는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0) a.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b. *이렇게 와 주시니까/*이렇게 와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c. 방해해서 미안해,
d. *방해하니까/*방해했으니까 미안해.

(10a)와 (10c)는 '-아서/어서'가 좁은 시야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감사의 감정을 가지는 것을 표현하는 데 문제가 없다. 화자의 시점은 자신에게로 향하고 시야는 좁혀져 있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본다. 반면 (10b)와 (10d)는 선행절에 '-(으)니까'를 써서 청자와 공유하는 넓은 시야를 설정해 놓고 갑자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야가 좁혀지기 어려워 비문이 된다.

4.2.3. '-(으)니까'의 '비공손성(非恭遜性)'

다음으로 '-(으)니까'의 '비공손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1) a. 가 : 왜 밥 안 먹어?
나 : 배불러서.
b. 가 : 왜 밥 안 먹어?
나 : 배부르니까.

'-(으)니까'의 '비공손성'은 화자가 청자와 시점 및 정보를 공유함을 암시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정보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청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불필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화자가 타박을 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알고 있을 만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컨대 '배가 부르니까 밥을 안 먹지. 그것도 몰라? 왜 물어?'라는 반박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15]

지금까지 '-아서/어서'와 '-(으)니까'에 대해 이미 알려져 온 제약 사항을 시점

15) Jungno Ree(1975:75)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예로 들어 이러한 특성을 기술하였다.

의 범위, 즉 좁은 시야와 넓은 시야의 지정이라는 논리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 밖에 두 문법 형식이 시야의 지정으로 인해 후행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4.2.4. 후행절 문장 내용의 선택

'-아서/어서' 뒤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처럼 어떤 유형의 문장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으)니까'와 차이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평서문이라도 '-아서/어서' 뒤에 모든 후행절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후행절에서 청자를 이끌어 들이는 경우에는 '-아서/어서'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 예문과 같이 문장의 내용이나 생각의 범위가 화자만의 시야를 유지하는 것은 '-아서/어서'와 어울리나, 화자만의 시야를 벗어난 것은 어울리기 어렵다.

(12) a. 노후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우선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b. 노후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우선 건강을 지켜야 해요.

(12a)는 좁은 시야의 '-아서/어서' 뒤에 화자 자신의 결심, 즉 화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옴으로써 같은 시야를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12b)는 좁은 시야의 '-아서/어서' 뒤에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직접적인 명령이나 청유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청자를 끌어들이는 이야기, 청자와 상관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13) a. 일곱 시니(까) 인제 다들 곧 오시겠지요.[16)]
b. *일곱 시라서 인제 다들 곧 오시겠지요.
c. 일곱 시라서 다들 왔습니다. Jungno Ree(1975:74)

(13a)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시점을 공유하고 있다. '-(으)니까' 뒤에 화자가 청자의 시점을 초대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시점을 공유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므로 문장이 자연스럽다. '일곱 시면 다들 올 것'이라는 정보를 공유한 시점에서 청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반면 (13b)는 선·후행절의 화자의 시야가 맞지 않아 비문

16) Jungno Ree(1975)에서는 '-(으)니까'를 예문에서 한 번 다루고 모두 '-(으)니'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으)니까'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찾아 예문으로 차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으)니'와 '-(으)니까'의 구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이 된다. '-아서/어서'는 화자 혼자 지각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좁은 시야를 가지기 때문에 후행절에 갑자기 청자를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이다.[17] 그러나 (13c)에서는 청자를 의식할 필요 없이 좁은 시야 안에 들어온 상황, 즉 화자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아래 (13d) 역시 청자가 배제된 화자 중심의 좁은 시야에서 상황을 보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물론 (13e)도 가능하다. 이때 화자와 청자는 같은 무대를 바라보며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장면을 멀리 넓은 시야에서 보고 있다.

(13) d. 일곱 시라서 나는 얼른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e. 일곱 시니까 나는 얼른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18]

Jungno Ree(1975:73)에서는 '-아서/어서'가 화자의 결정이나 확고한 감정을 포함하며, 이는 완료된 행동, 이미 진행 중인 행동, 확고한 사실, 청자의 확인이 필요 없는 진술 등의 경우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화자의 결정이나 확고한 감정, 청자의 확인이 필요 없는 진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서/어서'가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위에서 살펴본 예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야와 후행절 선택의 예

선행절	후행절	
	좁은 시야(화자 중심)	넓은 시야(청자와 공유)
미끄러워서	조심하면서 걸었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해.	
심심해서	누가 왔으면 좋겠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해서	미안해.	
일곱 시라서	다들 왔습니다.	

17) Jungno Ree(1975:74)에서는 (13b)처럼 '개연성(probability)'이 '-아서/어서'와 쓰였거나 '-아서/어서'의 특성인 '이미 진행 중인 행동'이 '-(으)니'와 쓰였을 때를 예로 들어 비문이 된다고 보았다. 개연성을 가지는 사건은 화자만의 좁은 시야와 맞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행동은 청자와 상관없이 화자가 지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이 이 연구의 주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18) 모든 문장과 상황에서 '-아서/어서'와 '-(으)니까'가 항상 다른 후행절을 가져야 하며 같은 후행절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각의 경우 화자의 시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선행절	후행절	
	좁은 시야(화자 중심)	넓은 시야(청자와 공유)
일곱 시라서	나는 얼른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배불러서	안 먹어.	
일곱 시라서		*다들 곧 오시겠지요.
미끄러워서		*조심해!
심심해서		*언제든지 와도 돼요.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갑시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심심하니까		언제든지 와도 돼요.
일곱 시니까		다들 곧 오시겠지요.
배부르니까		안 먹지.(비공손성)
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방해하니까	*미안해.	

지금까지 '-아서/어서'와 '-(으)니까'에서 [원인], [이유]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순차/계기], [발견/관찰]의 경우도 같은 틀의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기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겠다.

(14)[19]

a. 가방이 무겁지 않으냐고 해서 ① 나는 괜찮다고 했다.
② 그는 괜찮다고 했다.

b. 가방이 무겁지 않으냐고 하니까 ① 그는 괜찮다고 했다.
② 나는 괜찮다고 했다.

19) 연구자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술대회장에서 청중들에게 위와 같은 두 예문을 주고 후행절에 어떤 문장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겠는지를 물었다. 청중은 대략 40~50명 정도로 거의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임을 확인하였다. 거수를 통하여 답을 물은 결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14a)와 (14b)에 각각 '① 나는 괜찮다고 했다.'와 '① 그는 괜찮다고 했다.'를 답으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아서/어서'와 '-(으)니까'만으로 후행절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시점의 범위(시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 예문은 화자가 과거의 대화를 옮기는 상황으로서 '-아서/어서'와 '-(으)니까'만으로 후행절의 선택이 명백히 달라지는 경우이다. 한국어 화자들은 (14a)의 후행절에 화자의 좁은 시야에서 가능한 답을, (14b)의 후행절에 화자의 넓은 시야에서 가능한 답을 선택하였다. 이는 '-아서/어서'만 제시되어 있을 때 모어 화자는 화자 자신에게 향한 상대방의 질문을 받고 좁은 시야에서 스스로의 상황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인식하였고, '-(으)니까'만 제시되어 있을 때는 화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향하는 질문을 하고 넓은 시야에서 상대방의 대답을 듣는 상황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20]

지금까지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점, 즉 좁은 시야와 넓은 시야의 분석에서 밝힌 몇 가지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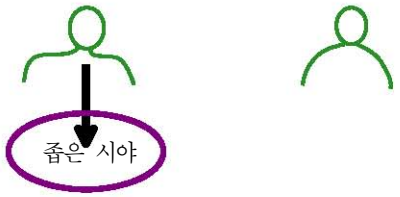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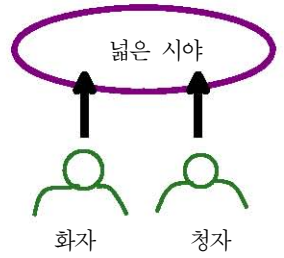
'-아서/어서'	'-(으)니까'
	
· 화자의 '좁은 시야'를 지정 · 화자는 청자와 다른 곳을 봄 → 후행절에 명령형/청유형 불가능 · 화자의 직접적 감정 표현(감사/사과 표현)	· 화자의 '넓은 시야'를 지정 · 화자와 청자는 시점을 공유함 → 후행절에 명령형/청유형 가능 · 정보 공유(비공손성)

그림 4.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점과 시야 개념도.

20)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비가 와서'와 '비가 오니까' 뒤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갔다.'라는 말이 공히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자의 주장은 앞서 밝혔듯이 모든 문장과 상황에서 '-아서/어서'와 '-(으)니까'가 항상 다른 후행절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각의 경우 다른 시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가 오다'와 같이 좁은 시야와 넓은 시야로 모두 지각이 가능한 상황은 두 가지가 같은 후행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문장과 상황의 경우는 시야의 차이로 인해 후행절이 선택되고 서로 바뀔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이며, 위와 같은 예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같은 후행절이 왔을 때라도 각 문장의 상황은 화자의 시야가 다름으로 인한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연구자의 직관으로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갔다.'고 하면 화자가 비가 오는 상황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 좁은 시야로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갔다.'고 하면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와 공유하는 좀 더 먼 넓은 시야에서 발화하고 있다는 느낌의 차이가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한국어의 특징을 밝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시점(視點)'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어 문법에 나타나는 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점을 '좁은 시야'와 '넓은 시야'의 개념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문법 형식의 분석에 '시점(視點)'을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였다.

둘째, '-아서/어서' 다음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시점을 통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셋째, '-아서/어서' 뒤에만 직접적인 '감사/사과' 표현이 올 수 있는 제약의 이유를 시점을 통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넷째, '-(으)니까'의 '비공손성'에 관하여 시점을 통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다섯째,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두 문법 형식의 시점이, 서로 다른 시야, 즉 '좁은 시야'와 '넓은 시야'를 지정함으로써 후행절의 유형에 관한 제약 외에도 내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시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화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고 쉽게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지각이 자유로운 만큼 언어 표현에 나타난 시점의 넘나듦도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오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유롭게 넘나들어 통합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문법에 나타나는 시점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틀은 있을 것이며, Lukoff(1989:15)의 말처럼 앞으로 시점의 연구가 가치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이 연구를 통하여 가져 본다.

참 고 문 헌

길본일. (1996). "'오다/가다'와 시점", 『우리말연구』, 6, 141-159.

김민수. (1981). 『국어의미론』, 서울: 일조각.

김일웅. (1988). "시점과 풀이씨의 태", 坡田金戊祚博士 華甲紀念論叢. 부산: 坡田金戊祚博士 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김종도 · 나익주 옮김. (2001). 『문법과 개념화』, 박이정.

김홍수. (1989). "국어 시상과 양태의 담화 기능",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 기념 국어국문

학 논총』, 서울: 탑출판사.
남기심. (1978). "-아서의 화용론", 『말』, 3, 9-20.
남기심・루코프. (1983). "논리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국어 통사・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노양진・나익주 옮김. (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박대범. (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유・원인의 연결표현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서울.
서정수. (1990/1992). "{고}와 {어서}", 『국어 문법의 연구 II』, 한국문화사, 311-339.
서정수. (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성기철. (2007). "어미 '-어서'와 '-니까'의 변별적 특성", 『한국어 문법연구』, 글누림, 241-268.
신현숙. (1998).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신현숙. (2001). "'거리'와 '유동성'으로 본 대우표현", 『한국어 현상과 의미 분석』, 서울: 경진문화사.
신호철. (2001). "시점(視點)과 특수조사의 상관성", 『어문학』, 73, 91-118.
안주호. (2006).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 『언어과학연구』, 38, 71-91.
오경숙. (2009). "한국어 이동 동사 '오다'와 '가다' 교육을 위한 문법 기술", 『시학과 언어학』, 17, 121-138.
이기동. (1977). "동사 '오다/가다'의 의미 분석", 『말』, 2.1, 139-159.
이남석. (1999). "이동의 움직씨에 관한 지시적 해석", 『한국어학』, 9.1, 229-257.
이도열. (2010). 『日本語 視點과 直示의 벡터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이익섭. (1978). "한국어의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인문논총』, 2, 3-25.
이익환 & Kuno, S. (1995). "Empathy and Hearer－Based Honorifics in Korean", 『언어』, 20-4, 213-267.
이필영. (1993).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임지룡. (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임지룡. (1998).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 『담화와 인지』, 5.2, 181-205.
임지룡. (2007). "시점의 역전 현상", 『담화와 인지』, 14.3, 179-206.
임지룡 외 공역. (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Y. Tsuji. eds. (2002). 『認知言語學キ-ワ-ド事典』, 東京: 硏究社.
임홍빈. (1985).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287-336.
임홍빈. (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장경희. (1980). "指示語 '이, 그, 저'의 意味 分析", 『어학연구』, 16.2. 167-184.
장경희. (1993). "{-니까}의 의미와 그 해석: {-어서}와 대비하여", 『선청어문』, 21, 337-367.
장경희. (1994). "{-어서}의 의미와 화용상의 해석", 『텍스트 언어학』, 1, 169-200.
정인아. (2010). 『한국어의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

명대학교, 서울.
조숙환. (2009). “국어 인식양태소 구조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시점 이동과 역동적 심성 공간의 융합”, 『언어』, 34.1, 113-132.
조오현. (1990). “{-아서}와 {-니까}에 대한 연구: 통사, 의미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0, 79-101.
진정란. (2005). 『한국어 이유 표현의 담화 문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대, 서울.
최규수. (1991). “‘시점’으로 본 {와}의 기능”, 『국어국문학지』, 28, 7-30.
최규수. (1993). “시점과 문형의 관계”, 『우리말연구』, 3, 115-152.
최상진. (1989). “국어대우법상의 시점분석”, 『어문연구』, 17.4, 422-435.
최상진. (1990). “국어지시어의 거리와 시점”, 『국어국문학』, 104, 137-156.
홍정하. (2011). “담화 표지 ‘-는’/‘-가’와 화자 시점”, 『한국어 의미학』, 34, 451-477.
홍종화. (1998). “인과구문의 화용론 ‘-아서’와 ‘-니까’의 다성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22, 357-397.
Cantrall. (1969).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e in English, Doctorial disseriation, Univ. of Illinois.
Fillmore, C.J. (1966). Deictic categories in the semantics of ‘come’. *Foundations of Language* 2, 219-27.
Fauconnier, Gilles. (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 I. Saeed. (2009). *Semantics* (3rd edition). Wiley-Blackwell.
Jungno Ree. (1975). A Semantic Analysis of (u)ni and (e)se. *어학연구* 11.1. 69-75.
Kuno, S. & Kaburaki, E. (1977). Empathy and Syntax, *Linguistic Inquiry* 8.4, 627-672.
Kuroda. (1973). On Kuno’s Direct Discourse Analysis of the Japanese Reflexive *Zibun*, *Papers in Japanese Linguistics* 2.1, 136-147.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W. (2008). *Cognitive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Lukoff, Fred. (1989). Clauses in ‘hadoni’ and ‘hayottoni’ and Narrative Point of View. *한국말교육* 1, 3-16.
Lyons, J. (1977). *Semantics* 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mpson, Paul.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London: Routledge.
Y. Tsuji. eds. (2002). 『認知言語學キ-ワ-ド事典』, 東京: 研究社.

정인아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전자우편: tilri36@snu.ac.kr

접수일자 : 2012. 11. 02
수정본 접수 : 2012. 12. 03
게재결정 : 2012. 12. 09